

## 어느 공작새의 울음소리 조정

조 준 행

청운동물병원장

현재 고소득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새로 짓는 주택에는 많은 정원수와 더불어 보기 좋은 몇 마리의 공작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작은 여러 종류가 길러지고 있으나 이들은 새들의 왕으로 그 모양이 매우 보기 좋다.

그러나 이들 공작이 우는 목소리는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로 부터 항상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공작을 기르는 사람들이 주택가에 사는 이상 이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이른 봄 공작의 번식기가 가까워지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그 무뚝뚝하고 짜지는듯한 연속적인 소리는 영양이 좋은 놈일수록 정력과 비례하여 연속적으로 울어대니 한번도 듣기싫은 공작울음 소리에는 모두 질색을 한다.

결국 이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공작새 주인은 동물병원을 찾아와서 수의사와 상담하게 된다.

그들 주인은 공작새의 울음소리만을 없앨수 없느냐고 문의해 본다. 이와같은 축주의 요구는 그리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동물병원에서나 간간이 있는 일로써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의 수의사로서는 매우 난감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 수의사가 대학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적도, 또 배운적도 없으며 더구나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것이기 때문이다.

성서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고비를 몇 번인가 지내고서 어느해 일본소동물수의사회에 참석하였을때 평소 읽고 싶었던 「小動物成形外科의 實際」라는 책을 구해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발성기에 관한 무성수술의 여러가지 방법과 조류의 滅聲術을 열심히 읽었으나 실질적인 생체실습을 못하였기 때문에 막상 공작새의 주인들과 다시 대하게 되었을때 수술로 인한 생명의 위험도 때문에 확실하게 승락을 할 수가 없었다. 그후 그 공작새는 결국 동네주민들의 아우성으로 박제가 되어버렸다.

그 뒤로 필자는 공작대신 닭으로 여러번 실습을 거듭한 바 수술에 성공하였고, 그 뒤 실제 공작의 수술에도 성공을 거두워 여기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의 발성기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포유류와 같이 성대의 울림이 없고 그 울음소리가 鳴管이라는 특수한 기관에 의해서 생긴다. 이 鳴管은 고막의 청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氣管終末인 氣管分枝部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鳴管은 氣管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울음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발성기인 鳴管을 제거하면 되겠다. 鳴管인 氣管終末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의 開胸手術으로써 肺氣管枝을 줄이는 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는 공작을 자세히 보면 기관을 움직이면서 목을 상하로 신장하고 울때는 기관이 팽대되어 주먹만한 크기의 형태가 오르내린다.

사람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자연히 병어리가 되는것과 같이 새의 청각을 무디게하거나 아주 파괴하게 되면 울음소리에 변화가 울 것을 착안하여 실행하였으나 공작새의 고막은 재생력이 좋아서 실시후 2~3개월에 먼저번 울음을 되찾았다.

이 시술은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고 시술소요시간도 단지 10~20분이면 되나 울음소리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았다.

그래서 이 시술에 다 첨가된 것이 베어링법과 석고주입폐쇄법인데 사용결과 보다 나은 방법을 고안 하였던 바 여기 기술한다.

이런 일종의 시술에서는 간단한 마취가 필요한데, 마취방법은 Ether이나 吸入麻酔를 한다.

다음 안과용 스파텔(耳鼻科用綿棒代用可) 로 고막을 파괴하고 air compressor나 공기압축용 펌프로 베어링이나 치과용 석고를 컷속에 넣어준다.

다음 이 베어링이나 석고가 다시 内耳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03~02호 nylon이나 polystylen系로서 봉합하는데 바늘은 小彎針을 사용하였다.

이때 주입하는 베어링은 직경이 3~4 mm 이면 족하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内耳의 직경이 3 mm인것이 가장 많았고 개중에는 2mm인것도 있었으며 한공작에서 左右가 각각 다른 크기인 것도 간혹 있었다.

이 시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작새의 좌우의 날개를 교차시키고 이때 발머등을 치면 발도 부드러운 끈으로 묶는다.

주둥이에는 성냥개비를 물리고 노끈으로 개의 입을 보정할때와 같이 동여매고 양쪽의 内耳 주위의 털은 손끝으로 잘 제거하여 깨끗하게 노출시킨다.

다음 면봉으로 컷속에 넣어서 좌우로 쭈시어 고막을 파괴한다. 다음 컷구멍에 맞는 베어링을 고막부위에 삽입하고 봉합한다.

최근 나의 방법은 대형철제 주사기로 일시에 강한 바람을 컷속에 넣어서 고막을 파괴하고 베어링대신 푸라스틱 장난감총알을 넣고 치과용 석고를 미지근한 물에 잘개어서 귀구멍을 완전 봉쇄하고 귀구멍주위를 0-3호 nylon系로 봉합하여 귀구멍을 폐쇄시키면 이안에 석고는 15분 내에 응고하여 고막부위에는 공간이 생길수가 없어서 고막의 재생을 방지하게 되기때문에 반영구적인 시술이 된다.

이 시술을 받은 공작은 시술후 2~3일이면 정상시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이 시술에서 주의할 것은

- 1) 고막은 충분히 파괴할 것
- 2) 석고는 충분한량을 사용하여 고막의 재생을 방지할 것
- 3) 귀구멍을 잘 봉합하여 석고의 탈락을 절대 방지할 것 등이다.

#### 《参考文献》

1. 永田秀夫：騒音防止面かり見た犬の無声手術の臨床的研究について，獣医畜産新報 No. 204, 24, 1957.
2. 永田秀夫：騒音防止と犬の無声手術，日本獣医師会誌 Vol. 11, No. 9, 419, 1958.
3. 松川誠夫ら：「家畜の騒音防止に関する研究」  
I. 主として 耳栓による鳴な交い鶴鶏の作出  
II. 鼓膜破壊と耳栓による鶏の鳴主声抑制 久山登美雄 第 79. 80回 日本獣医学会抄録, 1970.
4. 小動物 形成外科の 実際 155p.